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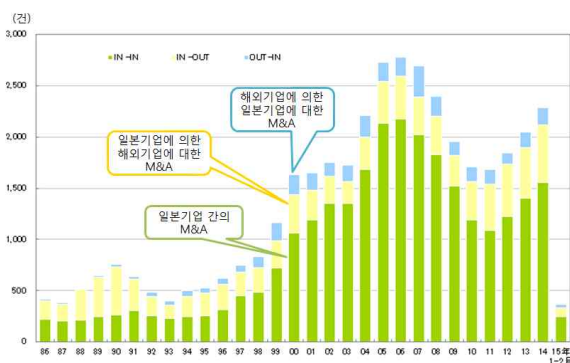
일본기업의 M&A 급증

- 엔저 상황에서도 일본기업에 의한 해외 M&A가 증가, 특히 대기업들이 새로운 시장 개척을 목적으로 하는 대형 M&A가 확산
- 방어형 경영에서 탈피하고 새로운 성장을 위해 M&A를 포함한 전략적 투자의 일환으로 글로벌 경영의 폭을 넓히려는 것이 주된 배경
- 제조업뿐만 아닌 생명보험, 금융 서비스 분야에서도 해외 M&A를 추진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시장 획득을 위한 M&A가 가속될 것으로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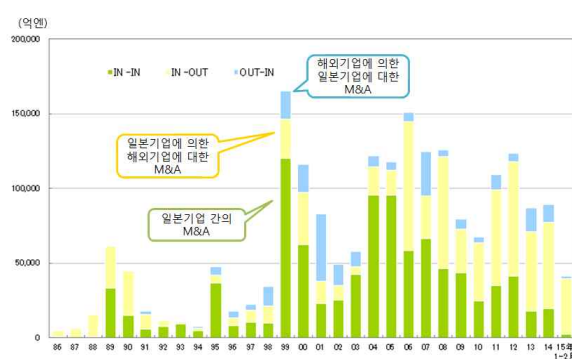
□ 엔저 상황에도 늘어나는 In-Out M&A

- 최근 일본기업에 의한 해외기업의 M&A(In-Out)가 급증, 글로벌 기업뿐만 아니라 내수형 기업들이 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해외로 진출하는 사례도 증가
- 레코프에 따르면 '15.1.1~3.6까지 In-Out M&A 금액은 3조 8,842억 엔을 기록, '14.1~3월에 비해 76% 증가
 - 분기별로는 과거 최고치였던 '06년 1분기(3조 7,649억 엔)를 상회, 9년 만에 분기 베이스로 최고 기록
- * M&A 건수는 일본기업 간 M&A(In-In)보다 적지만 금액으로는 대폭 증가
- '14년도 In-Out M&A는 전년대비 7% 증가한 7조 4,517억 엔으로 과거 최고이었던 '08년 7조 2,893억 엔을 초과

<'86년 이후 시장별 M&A 건수 추이>



<'86년 이후 시장별 M&A 금액 추이>



자료 : MARR Online

□ 주요 M&A 사례

① 히타치제작소

- 이탈리아의 방위항공 업체인 핀메카니카로부터 철도차량·신호사업을 2,600억 엔에 매수하기로 발표
- 히타치는 미국 GE나 독일 지멘스와 같은 세계 수위를 점하고 있는 사업은 거의 없으나 빅 데이터 등 고도의 IT 분야에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음
 - 건설기계, 정보시스템, 의료, 자동차, 엘리베이터, 헬스케어 등 여러 분야에 연결하여 정부와 기업의 효율화를 위한 사업을 지향하고 있음

② 아사히 카세이

- 2,600억 엔을 들여 미국의 전지소재업체인 폴리포아를 매수
- 리튬이온 전지의 주요 소재인 세퍼레이터(절연재)분야의 세계 최대 기업인 아사히 카세이는 현재 35%의 시장점유율을 약 50%로 끌어올려, 2위인 도레이와 격차를 벌일 예정
 - 공급선도 종래 스마트폰용에 더하여 앞으로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전기자동차(EV) 분야에 확대하고 사업기반을 강화할 계획임
- 최근 세퍼레이터 분야에 참여하고 있는 일본계 소재업체들이 적극 투자에 나서고 있음
 - 스미토모화학은 세퍼레이터의 생산능력을 2020년에 2015년의 3배로 확대할 계획
 - 테이진도 2014년 12월 한국에 있는 공장의 세퍼레이터의 생산능력을 2배로 확대
- 아사히카세이는 주력으로 삼아왔던 석유화학제품과 섬유에 더하여, 앞으로는 환경 에너지 분야의 사업을 늘려나갈 계획
 - 가격경쟁에 휘말리기 쉬운 대량생산 중심의 사업구조로부터 탈피, 세퍼레이터 등 고부가가치제품에 주력

- 아사히카세이 뿐만 아니라, 일본의 여타 소재 업체들도 풍부한 유동성자금을 바탕으로 사업구조 전환과 M&A를 확대할 전망

③ 일본우정 그룹

- 호주의 물류업체 톨 홀딩스를 6,200억 엔에 매수
- 일본우정은 2003년에 공사화에 이어 2007년에 주식회사로 전환한 이후 국제물류 사업에 본격 진출
 - 2015년 가을 일본우정(지주회사), 유초은행(자회사), 간보생명보험(자회사) 등 3개사의 동시 상장을 계획
- 일본의 우정사업 민영화는 비대해진 공적 금융부문과 우편사업이 민업을 압박한다는 비판을 계기로 이루어진 것인데, 이 때문에 우편저금잔고가 피크 시(1999년)의 260조 엔에서 현재는 180조 엔까지 감소하는 등 사업이 축소
 - 성장 노선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확대뿐만 아니라 사업운영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임

④ 캐논

- 세계 최대 감시 카메라 제조업체인 스웨덴의 아쿠시스커뮤니케이션을 3,300억 엔에 매수
- 현재 네트워크 카메라의 세계시장규모는 주변기기도 포함하여 약 1조 6,000억엔 , 2018년에는 3조 엔에 이를 전망
- 캐논의 네트워크카메라 매출액은 연간 20억 엔 정도인데, 아쿠시스 매수로 800억 엔으로 증가
 - 2016년 12월 결산기에는 매출액 1,000억 엔, 약 100억 엔의 순이익을 계상할 계획이며, 의료기기와 함께 신규 사업의 핵심임
- 이에 따라 캐논은 주력인 카메라사업 등이 고전하는 가운데, 풍부한 유동성자금을 사용하여 성장시장에서 일거에 수위로 올라설 전망

⑤ 이토추 상사

- 2015년 1월 중국 최대 복합기업인 중국 중신집단(CITIC)에 6,000억 엔을 출자
- 일본기업의 대중투자로는 과거 최대로서,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에서 식량과 자원개발 등의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게 되는데, 냉각된 중일경제교류의 개선에 계기가 될 가능성도 있음
- 이토추와 태국의 CP가 절반씩 출자하는 특정목적회사를 통하여 홍콩시장에 상장하고 있는 중국 중신그룹에 이르면 금년 중으로 출자할 예정인데 출자비율은 양사 합쳐 약 20%
 - 중국 중신그룹은 CITIC산하의 지주회사로 은행, 증권, 부동산, 자원개발 등 약 20개의 핵심기업들을 거느리고 있음
 - 무엇보다도 시진핑 주석 지도부와의 긴밀한 관계를 쌓고 있는 CITIC그룹에 출자함으로써, 외자규제가 엄격한 중국에서의 자원개발과 물류망 정비, 부동산 개발 등 이제까지 참여하기 어려웠던 분야에 진출하기 쉬워짐

⑥ 소세이 그룹

- 창약 벤처기업인 동 그룹은 영국 헤프타레스세라퓨틱스를 450억 엔에 매수
 - 일본의 바이오 벤처기업에 의한 매수안건으로는 최대 규모
- 소세이는 1990년에 설립된 벤처기업으로서, 정보수집 등을 목표로 유럽에 거점을 가지고 있으며, 2005년에도 영국의 벤처를 210억 엔으로 매수하여 신약후보의 저변을 넓혔음

⑦ 브라더 공업

- 2015년 3월 11일 영국 산업용인쇄기 제조업체 도미노프린팅사이언스를 매수한다고 발표
 - 매수가액은 10억 3천만 파운드(약 1,890억 엔)브라더로서는 과거 최대 안건
 - 주력 제품은 가정용 프린터 등에 더하여 신흥국을 중심으로 수요증가가 기대되는 산업용인쇄 분야를 강화하여 수익 기반을 넓힐 예정

< '15.1~3월 대형 In-Out M&A 안건 >

일본기업	매수액	M&A 대상 해외기업
히타치제작소	약 2,600억 엔	이탈리아의 방위·항공 대기업 Finmeccanica의 철도차량·신호 사업을 매수
아사히카세이	약 2,600억 엔	리튬이온전지에 사용되는 절연재를 제조하는 Polypore(미국)을 매수
일본우정(郵政) 그룹	약 6,200억 엔	호주 물류 대기업 Toll Holdings를 완전 자회사화
캐논	약 3,300억 엔	세계 최대의 네트워크 카메라 기업 Axis(스웨덴)를 매수
이토추상사	약 6,000억 엔	중국 최대의 국유복합기업 CITIC Group Corporation(中國中信集團)의 산하 기업에 출자
브라더 공업	약 1,890억 엔	산업용 인쇄기 대기업 Domino Printing Sciences(영국) 매수
킨테츠익스프레스	약 1,400억 엔	싱가포르의 물류기업 ALP Logistics를 매수

□ 일본기업의 M&A 증가 배경

- 최근 일본기업들의 M&A 증가는 글로벌화에 대한 의욕이 높아지고 있음을 반영
 - 각 기업들이 방어형 경영에서 탈피하여 독자적인 성장전략을 모색
- 일본 상장기업들의 유동성자금은 과거 최고수준인 100조 엔에 이르고 있음
 - 이는 새로운 성장을 위해 M&A를 포함한 전략적 투자의 재원이 되고 있음
- 일본기업들의 해외진출은 공장을 건설하고 판매망을 독자적으로 구축하는 형태의 사업전개가 많았으나, 최근 사업기반이 확고해진 기존 기업을 매수함으로써 글로벌 사업에 속도감과 탄력이 붙음
 - 동남아에서 중간소득층의 확대와 對소비자 서비스 분야에 대한 수요가 증가, 향후 동남아의 생명보험 시장이 더욱 성장할 것을 전망한 일본기업들이 잇달아 투자
 - 다이이치생명은 '14년 미국 생명회사와의 M&A에 이어 유럽에서도 안건을 탐색 중
- 미쓰비시UFJ파이낸셜 그룹은 국내외에서 자산운용 업무를 확대하기 위해 해외 M&A로서는 자회사인 미쓰비시UFJ신탁은행을 통해 3,000억 엔의 투자 규모로 안건을 선별 중
 - '13년에는 태국의 Bank of Ayudhya Public Company Limited를 5,360억 엔에 매수, 해외 운용기업과 연계한 자산 비즈니스를 강화

< 생명보험 대기업에 의한 해외 M&A 안건 >

일시	내용	금액
2013년 7월	다이이치생명이 Protective Life Corporation(미국)을 매수	5,800억 엔
12월	니혼생명이 PT Asuransi Jiwa Sequis Life(인도네시아)에 출자	430억 엔
2014년 5월	스미토모생명이 BNI Life(인도네시아)에 출자	360억 엔
6월	메이지야스다생명이 Thai. Life Insurance Public Company Limited(태국)에 출자	700억 엔

□ 시사점

- 일본기업에 의한 In-Out M&A는 '09년 이후 증가 추세이며, 최근 엔저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특징
- 이와 같이 최근 일본기업들의 M&A 확대는 글로벌화, 성장전략, 사업영역 확대라는 3가지 키워드가 배경을 이루고 있음
 - 최근에는 10억 달러 이상의 빅딜이 특징적인데, 일본기업들이 과거와는 달리 글로벌 경쟁이 심화된 상황에서 현지 기업을 M&A함으로써 세어, 판로, 인재 등을 매수비용으로 해결해 시간을 절약하는 전략으로 전환하였기 때문
- 그러나 M&A는 성공요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리스크도 수반된다는 점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
 - 마루베니는 2013년 매수한 미국 곡물업체 가비론이 예상만큼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감손처리가 불가피함에 따라 영업실적을 하향 수정한 바 있음
 - 소프트뱅크가 매수한 스프린터도 고전이 예측되고 있음
- M&A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상대기업이 가진 자산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고 매수 후 통합작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재무, 인사 전문가들을 육성할 필요가 있음
 - 또 최근처럼 M&A 붐이 일고 있을 때는 고가 매수가 발생하기 쉬운 점에도 주의가 필요

<참고자료>

닛케이신문(2015.3.8/9/11/12)